

16/09/18(주) 주일예배 / 제목 : 라오디게아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계 3:14~22) p. 402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그 동안 우리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가운데서 마지막 일곱 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및 사데 교회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가운데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의 특징을 차례대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각 교회가 보여주었던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데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데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데 교회 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아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전체가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라오디게아' 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알아야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B.C. 261~253년 사이에 시리아의 셀레우코스(Seleukos)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아내 라오디스(Laodice)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인근에 히에라볼리(파묵칼레), 골로새와 함께 여러 지방을 두루 잇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은행이 세워지는 등 금융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검은 양들이 많이 사육되어, 오늘날의 밉크코트처럼 값비싼 옷들이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도시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무너진 도시 유물만이 돌무덤처럼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과거 라오디게아는 꺾병과 눈병을 치료하는 연고와 병원으로 유명했으며 콜로리온(Koulourion)이라고 불리는 안약은 전체 로마를 상대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Pharmacy(조제실)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루커스 계곡의 넓고 기름진 땅에서는 목양과 목화 재배가 활발하여 막대한부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상원들이 입고 다녔던 흰 옷들은 거의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이 금융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의 중심지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세속주의와 자만에 빠져 우리 주님 예수 앞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진리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아멘, 곧 진리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필이면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후1:20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아멘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죄 사함의 약속도, 구원의 약속도, 영생의 약속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떠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멘이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죄 사함, 구원, 영생 같은 것들을 전혀 받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요3:31~32 말씀처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일들을 충성되고 참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시의 이단 사상이 전하는 거짓된 주장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와 같은 이단적 기독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론은 분명하고도 확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4절)

2.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15~17절)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낱알이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행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을 생각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루스케에는 세 개의 도시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서는 뒷산인 타우르스(Taurus) 산악지대의 만년설이 녹아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루커스 평야를 거쳐 라오디게아까지 흘러 내려오다 보면 어느덧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파묵갈레’라 불리는 ‘히에라볼리’는 온천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물은 치료의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도 10km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면 식어져서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고, 히에라볼리의 더운 물은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16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

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에는 다량의 석회석과 철분, 그리고 짐승들의 오물과 주변의 모직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물은 몸에 해로웠습니다. 맛과 냄새도 역겨웠습니다. 따라서 그 물을 마시면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의 미지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로지 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역겹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기는커녕 자신들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찌보면 이들이 스스로 하는 말은 대단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들이 보는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평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섯 가지로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곤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짐을 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가련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멸망과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가련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요10:10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로 보지 못했고,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사망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간의 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악으로 물든 자신들의 영혼을 가려줄 의의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벌거벗은 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은 부요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으스대고(으쓱거리며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가슴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고만이 있지 않은지 살펴 보아야 하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어 들여야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14절) 2.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15~17절)

3.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18~20절)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이었습니다. 벰전1:7 말씀처럼, 때때로 성경은 믿음을 금에 비유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닫힌 문을 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곧 순수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영적으로 부요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흰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흰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셋째, 안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령한 안약을 예수님에게서 사서 그들의 심령의 눈에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어, 그들의 영안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야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들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서 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선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징계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책망해서 듣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징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그들을 사랑으로 책망하시며 또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동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이단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교회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물리쳤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교회 안으로 영접해야 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부수고서, 바로 즉시 그들을 심판해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그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동안 굳게 닫아놓았던 문을 열게 되면 두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시게 되면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사 “먹다”는 저녁 식사, 곧 풍성한 만찬을 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여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으며, 늘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4절) 2.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15~17절) 3.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18~20절)

4.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1절)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물론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문전박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의 한쪽 구석에 세워두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권면을 받아들이면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눅22:30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열두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면 그들에게도 사도들과 똑같은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물론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여러 복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기는 자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받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 별을 얻습니다. 흰 옷을 입으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늘의 총회 앞에서 시인됩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이 위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을 차례대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행여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죄로 얼룩진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사데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확고한 신앙을 가짐으로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요약정리 /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4절)
2.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15~17절)
3.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18~20절)
4.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1절)